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Writing Future Autobiography Using Information Activities on High School Student's Ego-identity

서 행 민(Haeng-Min Seo)*
이 병 기(Byeong-Ki Lee)**

< 목 차 >

I. 서론	IV. 미래자서전 쓰기 수업의 실제와 적용
II. 정보활동과 연계한 미래자서전 쓰기	1. 미래자서전 쓰기 수업설계
1. 미래자서전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2. 수업전개 과정과 주안점
2. 미래자서전과 자아정체감	V. 연구결과 및 해석
3.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수업	1. 자아정체감 변화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 서면 인터뷰 결과
1. 연구대상 및 기간	VI. 결론 및 제언
2.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초 록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전개한 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1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는 주 1회 50분씩 총 15차시에 걸쳐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래자서전을 쓰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다.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자아정체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미래자서전, 자아정체감, 쓰기, 자서전, 정보활동, 도서관활용수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writing future autobiography program using information activities in school library on improving high school students' ego-identity. This study was conducted 198 high school students in grade 2. Writing an autobiography using information activities in library was conducted 15 times in total, once a week for 50 minutes, and students had done information activities to get to know about themselves and their own lives and they wrote their future autobiography based on those activities. Then they made their own book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 of students' ego-identity before and after writing the future autobiography through t-test,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some meaningful differences.

Keywords: Future Autobiography, Ego-identity, Writing, Biography, Information Activities,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 천안 북일여자고등학교 교사(kifin@naver.com) (제1저자)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isdoc@kongj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5년 12월 7일 •최초심사: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16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599-620,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12.599]

I. 서론

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일반 인물의 전기문이 교과서에 수록되고 학습자 스스로 자서전을 써보는 학습활동이 제시되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서전과 관련한 성취기준이 등장한다. 국어과 8학년 읽기 성취기준에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상황과 관련지어 이해”라 제시되어 있고, 쓰기 성취기준에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51-52).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자서전이 가지는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글을 읽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탐색하여 자신의 삶을 한 편의 글로 적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단편적인 글 한편을 쓰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에 대해 상상하고 계획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서전에 들어갈 글감을 수집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서전 쓰기 수업은 한 두 시간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탐구활동을 동반하는 프로젝트학습이 적절하며, 다양한 자료와 정보활동(예를 들면, 정보탐색, 정보분석, 정보표현 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교실 보다는 학교도서관에서 전개하는 것이 유익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는 교육방법을 보통 도서관활용수업이나 도서관협력수업이라 부르고 있다. 도서관활용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도서관협력수업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사서교사의 배치 여부, 다양한 자료의 비치 여부, 교과교사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등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서관협력수업만을 지향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과와 특성이나 교사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협력수업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도서관활용수업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의 국어교사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교과와 관련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15차시에 걸쳐 전개하고, 이 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였고, 양적 검사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서면인터뷰를 통한 질적 검사도 실시하였다.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전과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에 각각 자아정체감 검사를 하였고,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미래자서전 쓰기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서면인터뷰를 병행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서관협력수업에 관한 연구로는 사서교사와 중국어 교사간의 협력수업(이덕주, 조미아

2012), 사서교사와 국어교사의 협력수업(기민진, 송기호 2013) 등이 있고, 교과교사가 도서관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한 사례 연구로는 가정과 교육에서 학교도서관활용수업(이효순, 유태명 2007)이 있으나 이 또한 사실상 도서관협력수업 모형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는 교과교사가 단편적 수업이 아닌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의 도서관활용수업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서전 쓰기에 관한 연구는 자서전 쓰기의 방법이나 자서전 쓰기 교육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유강하 2010; 임지연 2013; Begg 2011). 유강하(2010)는 인문학과 인문치료의 효과라는 관점에서 미래 자서전 쓰기에 접근하고 있으며, 임지연(2013)은 자서전적인 서사가 글쓰기의 통합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Begg(2011)는 자기 및 타인의 이해, 경험의 공유에 의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관점에서 자서전 쓰기에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서전 쓰기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자서전 쓰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해외의 경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서전 쓰기에 관한 연구가 다소 있으나 자아정체감의 관점에서 접근한 자서전 쓰기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자아정체감에 관한 선행 연구 또한 교육학, 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방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상당수에 이른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관련 연구는 미술치료, 동아리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접목한 연구가 있고, 대체로 부적응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고미숙 2003; 박현이 2006; 노주영 2009; 류동규 2010). 자아정체감과 글쓰기를 연계한 연구(박소연, 김한별 2012; 박태진 2010)가 다소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 자서전쓰기와 자서전쓰기의 효과로서 자아정체감을 연계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II. 정보활동과 연계한 미래자서전 쓰기

1. 미래자서전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자서전은 살아온 평생을 돌아보고 정리하기 위해 쓰는 것으로, 보통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 쓰게 된다. 그런데 미래자서전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삶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다. 즉, 미래자서전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디자인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생생하게 글로 적는 것이다(임재성 2011, 11).

미래자서전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해 쓰는 것이다 보니 마음대로 아무 얘기나 써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미래의 삶이라고 해서 결코 허무맹랑한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

니다. 또 ‘미래’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미래자서전의 내용 전체가 미래의 얘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삶이라는 것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인 만큼, 미래자서전 또한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듯이 사건과 사건이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자서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미래자서전을 써 나가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미래의 삶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미래자서전 쓰기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한편,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적극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유강하 2010, 613).

2. 미래자서전과 자아정체감

청소년기에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혼돈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적응도도 높아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rikson)이 최초로 제창한 ‘자아정체감(Ego-identity)’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을 말한다(박아청 2003, 373-374).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아정체감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함축적, 총체적, 일관적인 믿음과 느낌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15). 이러한 믿음과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진다.

긍정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은 신념, 가치관, 정치적 견해, 직업 등에서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지만, 상충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정체감의 혼돈을 겪게 된다. 사람들은 자아정체감을 갖기 위해 일정 기간 격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시기를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박언하 외 2009, 113-114).

내가 누구인지, 나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내가 왜 사는 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이를 견고히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한 인간은 자기라는 존재와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 이에 자아정체감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박소연, 김한별 2012, 154).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은 곧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어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야기는 부각시키고 또 어떤 이야기는 배제한다. 이러한 발췌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형성하게 된다(고미숙 2003, 15).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1인칭 시점의 글쓰기에는 일기, 편지, 수필, 자서전, 감상문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글쓰기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자아의 모습을 그리기에 적당하다. 이에 비해 자서전은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를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기 삶의 연속성을 파악하고 자아를 재구성하며 통합적으로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3.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수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에 개정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자서전과 관련하여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단편적인 글 한편을 쓰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에 대해 상상하고 계획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서전에 들어갈 글감을 수집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자서전 쓰기 수업은 한 두 시간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탐구활동을 동반하는 프로젝트학습이 적절하며, 다양한 자료와 정보활동(예를 들면, 정보탐색, 정보분석, 정보표현 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교실 보다는 학교도서관에서 전개하는 것이 유익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활동을 전제로 한 수업 방법을 보통 도서관활용수업 혹은 도서관협력수업이라 한다(기민진, 송기호 2013, 127; 이덕주, 조미아 2012, 235).

도서관활용수업은 학교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즉, 수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반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도서관활용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도서관이 갖고 있는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서관활용수업 중에서 도서관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방법을 말한다.

도서관활용수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자료 활용 전문가인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도서관협력수업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사서교사의 배치 여부, 다양한 자료의 비치 여부, 교과교사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등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도서관협력수업만을 지향할 수는 없을 것이다. Harada 등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간의 협력 정도에 따라서 도서관활용수업을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협동(collaboration) 등으로 구분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되, 교과교사의 독자적인 계획과 독자적인 교수활동이 주를 이루는 방식을 협력이라 하였다(Harada and Yoshina 2004, 26-29). 따라서 학교의 사정, 교과와 특성이나 교사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협력수업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도서관활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사례를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활용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정보활용교육에 널리 인용되고 있는 정보활용과정 모형은 이러한 정보활동을 패턴화하고 범주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보활용과정모형인 Big6 Skills 모형에서는 도서관활용수업에서 어떠한 정보활동을 학생들에게 유도하고, 전개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Big6 Skills 모형은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 활용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정보활동으로서 “과제 정의, 정보탐색전략 수립, 정보소재확인(탐색) 및 접근, 정보 이용, 정보 종합, 정보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Eisenberg and Berkowitz 1990, 5-9). 이병기는 Big6 Skills 모형 등을 참고하여 도서관활용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활동 모형을 정보제시-안내형, 정보탐색-정리형, 정보분석-해석형, 정보종합-표현형, 정보탐구-프로젝트형, 정보탐구-토론형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이병기 2006). 그 중에서 정보탐구-프로젝트형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과제의 특성을 분석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은 물론 정보수집에서 결과물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수업 방식이다. 정보탐구-프로젝트형 수업은 연구과제의 선정활동, 정보탐색 활동, 정보분석 및 해석 활동, 결과 도출 및 종합 활동, 결과물 생성 및 표현활동, 결과 및 과정의 평가활동 등 일련의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수업의 형태로 가장 포괄적인 정보활동에 해당하며, 정보탐색 및 정리, 정보분석 및 해석, 정보표현 및 종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도서관활용수업 시간에 적용하되, 정보탐구-프로젝트형 수업 모형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도서관활용수업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에서 미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자서전 쓰기 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청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5개 학급, 총 19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활용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4년 3월에서 9월까지 1학기 동안 도서관활용수업을 전개하였으며, 총 15차시(1차시 50분)에 걸쳐 미래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2차시와 15차시에는 자아정체감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미래자서전을 쓰기 전과 쓰고 난 후의 자아정체감에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였고, 15차시에는 서면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자서전 쓰기와 자아정체감 형성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 수업설계 모형을 바탕으로 ‘계획하기-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내용 표현 및 수정하기-평가하기’의 단계에 맞춰 15차시 동안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충남 천안의 B여고 인문계열 2학년 학생 198명이다. B여고는 자연계열 3개 학급, 인문계열 5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 교육과정에 자연계열은 문학교과가 4단위, 인문계열은 문학교과가 5단위 편성되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매주 네 시간은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한 시간은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처치한 후 사전-사후검사 방법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체 15차시 중 1-2차시에는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의 의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자서전을 읽게 하였으며 자아정체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미래자서전 쓰기 수업의 교수-학습 계획에 맞추어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수업이 마무리된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연구과제 1(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과제 2(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서면인터뷰를 통해 도서관활용수업이나 미래자서전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박아청이 1996년에 개발하여 2003년에 수정, 보완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6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소별로 각각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는 이미 개발자가 신뢰도(크론바하 알파계수 0.942)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

로 신뢰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검사도구의 하위요소와 관련 문항번호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박아청 2003, 384).

<표 1>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도구의 요소

하위요소	하위요소의 정의	문항번호
주체성	① 능력감 즉,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 ② 자신의 연속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1, 7, 13, 19, 25 31, 37, 43, 49, 55
자기 수용성	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②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정도	2, 8, 14, 20, 26 32, 38, 44, 50, 56
미래 확신성	① 장래 할 일(직업)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가? ②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	3, 9, 15, 21, 27 33, 39, 45, 51, 57
목표 지향성	①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가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을 신뢰하고 있는가? ②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	4, 10, 16, 22, 28 34, 40, 46, 52, 58
주도성	① 주변의 일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가? ②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	5, 11, 17, 23, 29 35, 41, 47, 53, 59
친밀성	① 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갖고 있으며,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② 집단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노출 정도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수집된 데이터는 SPSS(V.22)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사후 자아정체감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고, 유의수준은 $p < 0.05$ 로 설정하였다.

IV. 미래자서전 쓰기 수업의 설계와 적용

1. 미래자서전 쓰기 수업설계

미래자서전 쓰기는 앞으로 살아가야할 시간에 대해 상상하고 계획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서전에 들어갈 글감을 수집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과거와 현재의 나를 파악하고 미래의 나를 탐구하고, 계획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글감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글감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작성하고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표 2>와 같이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하였다.

이병기가 제시한 정보탐구-프로젝트형 모형은 수업의 과정을 연구과제의 선정활동, 정보탐색 활동, 정보분석 및 해석 활동, 결과 도출 및 종합 활동, 결과물 생성 및 표현활동, 결과

및 과정의 평가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 분석 및 해석 활동을 통합하여 설계하였다(이병기 2006). 이는 실제 수업과정에서 탐색, 분석, 해석, 종합 등의 활동이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고 동시에 혹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표 2>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체제

학습과정	차시	학습 내용 및 활동
사전준비 (과제선정)	1	· 도서관활용수업 및 미래자서전 쓰기 수업 소개 및 모둠 구성 · 학생들이 읽을 자서전 찾기 [과제] 다음 시간에 자신이 읽을 책 준비하기
	2	· 자아정체감 검사 · 자서전 읽기(자서전의 구성, 특징, 내용과약을 위한 그래픽조직자 활동) [과제] 읽은 자서전에 대한 분석 및 감상 적어오기(정보조직을 위한 그래픽조직자)
내용생성 및 정보조직 (정보탐색, 분석, 해석, 종합)	3	· 과거의 나 파악하기 · 인생 그래프 그리기(그래프 작성 방법 탐색 및 비교 활동) · 인생 그래프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글쓰기(시각적 정보를 구술정보로 표현하기)
	4	· 현재의 나 파악하기 · 에고그램 검사하기 · 자신의 성격, 특성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하기 · 다중지능 검사하기
	5	
	6	· 나의 꿈 목록 만들기
	7	· 미래의 나 계획하기 · 내 삶의 이상형 찾기
	8	· 내 삶의 연대표 만들기
내용 표현 및 수정 (정보표현)	9	· 자서전 제목과 목차 정하기
	10	· 작성 및 수정하기
	11-12	[과제] 워드 작업해오기
	13	· 자서전에 들어갈 시각 자료 수집하기, 편집하기
평가 (정보평가)	14	· 표지 만들고 완성하기
	15	· 자서전 돌려 읽기 · 자아정체감 검사하기

2. 수업 전개 과정과 주안점

<표 2>에 제시한 도서관활용수업 기반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체제에 따라서 15차시에 걸쳐 수업을 전개하였다. 수업을 전개한 교사는 국어교사임과 동시에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학교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1학급을 대상으로 배정된 주당 5시간의 문학시간 중 4시간은 교실에서 수업을 전개하고, 나머지 1시간은 미래자서전 쓰기 활동을 위해 학교도서관에서 수업을 전개하였다.

15차시에 걸쳐 진행한 미래 자서전 쓰기 활동의 도서관활용수업 전개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전 준비(1-2차시) : 과제정의

1-2차시에 걸쳐 사전 준비 활동을 전개하였다. Big6 Skills 정보활용과정 모형이나 정보 활동 유형으로 보면 과제정의 단계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교실이 아닌 학교도서관에서 수업을 전개하고 교과와 관련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다는 것은 상당히 낯선 일이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며,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1차시 수업에서 청소년기에 현재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서전 쓰기가 그러한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학생들에게 자서전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갈래인 만큼,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서전을 읽게 하여 자서전 쓰기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읽을 자서전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실존 인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록한 것, 한 권의 책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시중에 출판된 책 중 ‘평생에 걸친 삶을 스스로 쓴’ 자서전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 위대한 사람의 삶을 다룬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다양한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실존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쓴 것이면 읽게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서전을 책으로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잡지, 신문 등에 수록된 것이 아닌, 단행본으로 출판된 책을 읽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였다.

15차시라는 기간 내에 자서전을 쓰는 것만도 빠듯한데 수업시간에 책을 읽는 것은 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책을 읽어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을 교사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높고, 또 수업시간 중에 어떤 책을 읽는지 학생들끼리 알게 되면서 인물에 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교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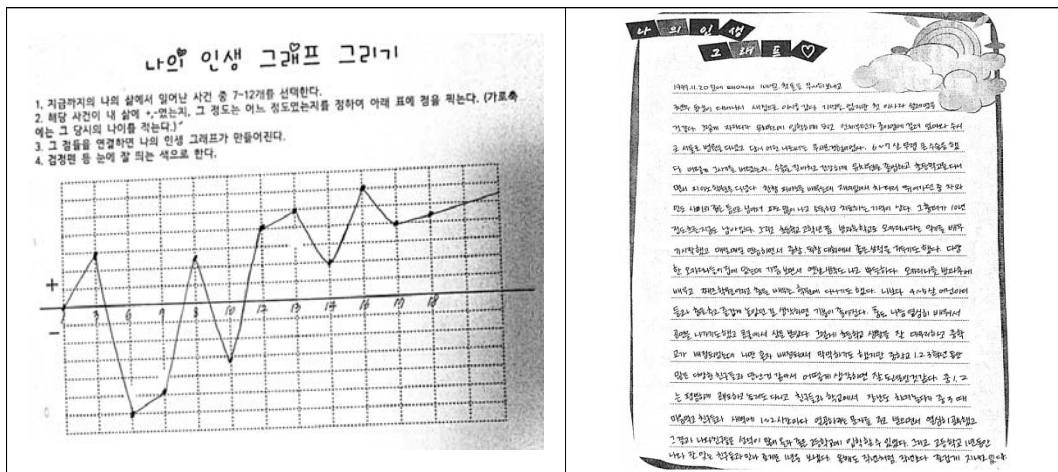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줄거리는 쓸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인물의 삶에서 인상 깊은 점, 본받고 싶은 점, 아쉬운 점 등을 중심으로 글을 쓰게 하였다. 자서전을 읽게 한 것은 자서전 쓰기의 사전 준비인 만큼, 그 사람의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가치관이 인물의 삶을 가치 있게 했는지를 학생들이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 인물의 삶을 분석해 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내용 생성 및 정보조직(3-8차시) : 정보탐색, 정보분석·해석, 정보종합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과거의 나 파악하기, 현재의 나 파악하기, 미래의 나 파악하기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Big6 Skills 정보활용과정 모형이나 정보활동 유형으로 보면 정보탐색, 정보분석·해석, 정보종합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과거의 나 파악하기(3차시)는 인생 그래프 그리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짧은 글쓰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좋았던 때와 힘들었던 때를 그래프에 표시해 보면서, 어떤 점에서 그때가 좋았는지 혹은 힘들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성찰해볼 수 있다. 인생 그래프를 그린 후에는 당시 나이와 사건, 그 사건을 + 혹은 -에 표시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인생 그래프와 설명을 바탕으로 과거의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글을 쓰게 하였다. 인생 그래프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굳이 글을 쓰게 한 이유는 한 편의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표시된 각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틈날 때마다 조금씩 글을 써두면 이후에 자서전에 들어갈 글을 쓰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학생이 작성한 인생그래프 및 설명, 그를 바탕으로 쓴 글의 사례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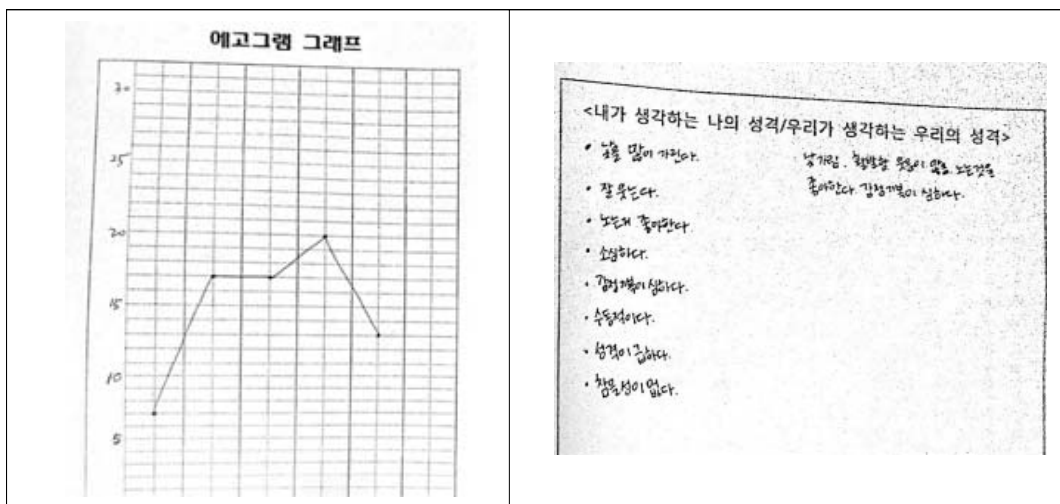


<그림 1> 학생이 작성한 인생그래프와 관련 글쓰기 사례

현재의 나 파악하기(4차시~5차시)는 에고그램 검사하기와 다중지능 검사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에고그램은 미국의 심리학자 듀세이(Dusay)가 고안한 심리검사로, 복잡한 사람의 성격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5개의 마음을 어떤 비율로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총 243개의 성격 유형으로 분류한다(이정현 2010, 179). 한국형 에고그램 검사지를 이용하여 검사를 한 후 각 영역의 합계 수치로 그래프를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선입견 없이 스스로의 성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해당 영역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수치가 제일 높게 나온 영역이 같은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성향에 대해 얘기해보게 하였

다.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어떤 성격이며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통점으로 나온 것은 단어 혹은 문장으로 쓰게 하였다. 그 후에 각각의 영역이 어떤 경향을 뜻하는지를 얘기해 주었는데, 대체로 학생들이 밝힌 공통점과 해당 영역의 경향성이 일치하였다. 학생이 에고그램 검사를 한 후 각 영역의 합계 수치로 그린 그래프와 모둠별로 자신들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 기술한 사례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학생이 작성한 에고그램 그래프와 성격적 특성

또한, 현재의 나 파악하기 활동의 일환으로 다중지능 검사하기(5차시)와 관련활동을 전개 하였다. 입시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성적이 낮은 학생 중에는 그 원인이 본인의 지능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에게 인간의 지능이란 특정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것을 말하며, 어느 누구나 특정 영역의 지능은 높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지능은 훈련에 의해 어느 정도 향상이 가능하다는 '다중지능'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드너(Gardner)는 모든 인간은 상대적으로 여덟 가지 독특한 지능을 소유하고 있고, 높은 IQ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도 여덟 영역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으며 이 지능은 모두 동등하다고 보았다(Gardner 2007). 검사지를 통해 대상학생들의 다중지능 유형을 검사하였고, 검사가 끝난 후에 에고그램 검사와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짧게 글을 쓰게 하였다.

미래의 나 계획하기(6차시~8차시)는 나의 꿈 목록 만들기(6차시), 내 삶의 이상형 찾기(7

차시), 내 삶의 연대표 만들기(8차시)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탐험가인 존 고다드(John Goddard)가 유명해진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적어 오던 ‘꿈 목록’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존 고다드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꿈 목록을 작성하였는지를 알려주고, 고다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고다드의 꿈 목록을 보면 세계 각지를 탐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고다드를 소개하는 영상도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꿈 목록을 찬찬히 살펴 보면,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또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문학적, 예술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거창한 탐험 계획 속에 자칫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측면을 학생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꿈이란 크고 거창하기만 한 것이 아니며 작고 하찮아 보여도 소중한 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꿈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꿈과 꿈은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꿈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 삶의 이상형 찾기(7차시)는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은 완전히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의 특징이나 장점을 뽑아 결합시킨 것이다. 학생들에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으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정 인물로부터 닮고 싶은 점을 하나씩 찾아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미래의 이상형을 그려볼 수 있다. 닮고 싶은 사람의 경우, 유명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선생님, 친구, 가족들 등), 만화나 영화, 소설 속의 인물들까지 다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인물, 다양한 삶의 모습과 접하면 접할수록, 학생들의 미래의 삶 또한 풍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사고가 좀 더 자유롭게 뻗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외적 요소는 배제하고, 인물의 가치관, 삶에 대한 자세, 성격 등의 내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표 3>과 같은 활동지(정문선 2009, 79)를 이용하여, 닮고 싶은 사람을 다섯 명 선정한 후 어떤 면을 닮고 싶은지에 대해 간단히 기록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각을 종합하여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내 삶의 연대표 만들기(8차시)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일어날지를 연도에 맞추어 정리해보는 활동이다. ‘인생 그래프 그리기(3차시)’에서 출생~현재까지를 정리해 보았으므로, 이 활동에서는 현재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연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계획한 꿈을 이루고 이상형의 삶을 살아가려면 몇 살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나열되었던 것들이 연대표를 만들면서 체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연대표를 만들 때는 6차시, 7차시에 작성한 ‘꿈 목록’, ‘내 삶의 이상형’과 연결시키도록 지도하였다. 또 연대표는 이

〈표 3〉 내 삶의 이상형 찾기

상상 속의 동물인 용. 용은 실은 여러 동물들의 부분부분을 모자이크한 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사슴의 뿔, 뱀의 몸통과 잉어의 비늘, 돼지의 코, 토끼의 눈? 날카로운 맹수의 발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카추도 그렇지요. 너구리의 몸매에 강아지의 눈망울, 어린애같이 토실토실한 볼, 이렇듯 귀여운 부분들만 빼다 모았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닮고 싶은 모습만을 뽑아내어,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장점을 하나하나 모아 보세요. 그것을 모아서 내가 바라는 완벽한 인간형, 곧 ‘인간 모자이크’ 를 만들어 봅시다.

닮고 싶은 사람의 좋은 면(성격, 태도, 포부, 능력 따위)들을 적어 보세요.
 예) 친구 이슬비 : 예의 바르고 밝은 표정에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면

■ 이런 좋은 점들을 모으면 어떤 모습이 될지 써봅시다.

후 쓰게 될 미래자서전의 개요이기도 하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허황되게 쓰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지어내는 것 아니냐며 로맨스소설류의 연대기를 쓰거나 현실과의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므로 수시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내용 표현 및 수정(9-14차시) : 정보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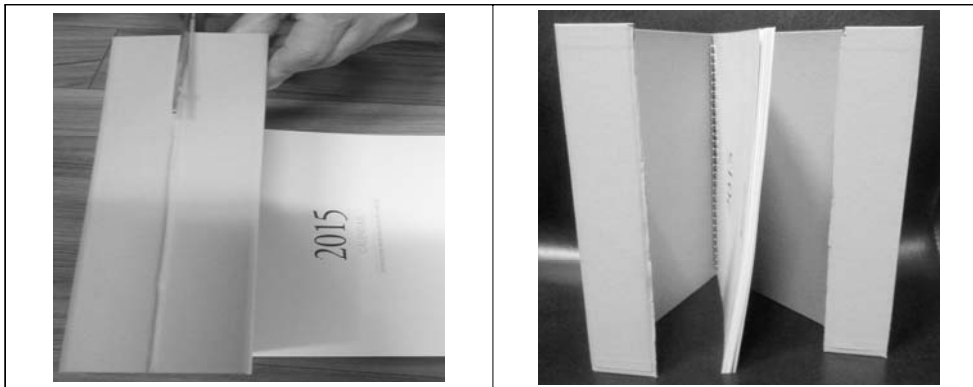
내용 표현 및 수정하기(9차시-14차시) 단계에서는 자서전 제목과 목차 정하기(9차시), 작성 및 수정하기(10-12차시), 자서전에 들어갈 시각자료 수집·편집하기, 표지 만들고 완성하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Big6 Skills 정보활용과정 모형이나 정보활동 유형으로 보면 정보표현 단계에 해당한다.

‘내용 표현 및 수정하기’ 단계에서는 그 동안 했던 생각들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자서전 쓰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무작정 ‘쓰기’에 돌입해 버리면 중구난방으로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서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서전 제목과 목차 정하기(9차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작성하기 및 수정하기(10-12차시) 시간에는 다섯 개 이상의 장으로 나눈 후에, 각 장별로 공책 한 쪽 분량으로 글을 쓰게 하였다. 자서전에 들어갈 시각자료 수집·편집하기(13차시) 시간에는 틈틈이 수집한 시각자료를 정리하고, 본문에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도록 하였다. 과거, 현재와 관련된 시각자료는 구하기 쉽지만 미래와 관련된 시각자료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에서 자신이 계획하는 미래의 삶과 관련된 사진을 찾아서 삽입하거나 합성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하였다.

표지 만들고 완성하기(14차시) 시간에는 표지를 디자인하고 자서전을 마무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래자서전 쓰기는 말 그대로 미래자서전을 쓰는 것이 목표이므로 한 편의 자서전을 다 쓰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해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책 만들기로 활동을 마무리한 이유는 실제적인 결과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결과물이 없으면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한 학기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왔던 작업물을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해 가면서 학생들은 그 동안의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체득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책을 완성하면서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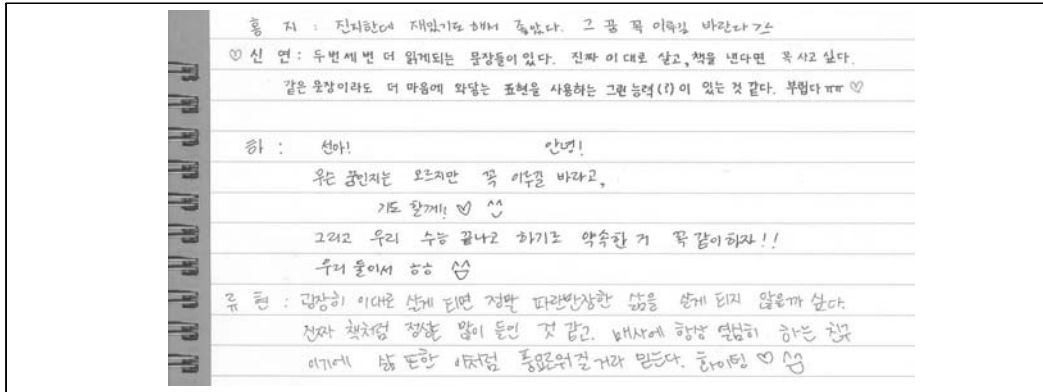
책 만드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틈틈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나만의 멋진 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독려하면서, 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손쉬우면서도 완성도 높게 책 만드는 방법으로 탁상달력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그림 3>처럼 탁상달력의 바닥에 세우는 부분을 반으로 자르면, 탁상달력은 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표지는 자서전의 내용에 맞게 꾸미고 워드 작업한 것을 출력하여 속지에 붙이면 깔끔하고 튼튼한 자서전을 만들 수 있다.



<그림 3> 탁상달력으로 책 만들기

라. 평가(15차시) : 정보평가

마지막 시간(15차시)에는 완성된 자서전을 돌려 읽으며, 자서전의 여백에 자서전에 대한 느낌,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자서전 발간에 대한 축하 등을 쓰도록 하였다. Big6 Skills 정보 활용과정 모형이나 정보활동 유형으로 보면 정보평가 단계에 해당한다. 마지막 시간은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고 그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했다. <그림 4>는 동료 학생이 다른 학생의 미래자서전에 써준 상호평가 혹은 감상을 기록한 사례이다.



〈그림 4〉 자서전에 동료 학생들이 써준 멘트 혹은 감상 글 사례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자아정체감 변화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98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였고, 그 차이를 SPSS V.22에 의해 대응표본 t-test로 검증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자아정체감 변화 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전	198	3.50	0.47	14.62	0.001
사후		3.66	0.56		

*p<0.05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자아정체감 평균은 3.50점, 실시한 후의 평균은 3.66점으로 0.16점 향상되었고, 유의확률 $p=0.001 < 0.05$ 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프로젝트 방식의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자아정체감 검사도구의 여섯 개 영역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소별 변화 분석

하위요소	N	사전-사후	평균	표준편차	t	p
주체성	198	사전	3.67	0.52	-1.63	0.05
		사후	3.75	0.50		
자기 수용성	198	사전	3.50	0.56	17.53	0.001
		사후	3.69	0.70		
미래 확신성	198	사전	3.61	0.58	3.2	0.008
		사후	3.82	0.64		
목표 지향성	198	사전	3.27	0.58	10.31	0.001
		사후	3.48	0.65		
주도성	198	사전	3.37	0.60	11.33	0.001
		사후	3.50	0.69		
친밀성	198	사전	3.61	0.57	20.74	0.001
		사후	3.71	0.68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을 여섯 개의 하위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다섯 개 요소에서 모두 유의수준($p <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성의 경우에도 유의수준과 유의확률 $p = 0.05$ 로 동일하게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하위요소 중에서 미래 확신성과 목표지향성의 두 요소가 사전평균에 비해 사후평균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서면 인터뷰 결과

자아정체감 검사를 통해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다섯 개의 척도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질적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답할 수 있는 개별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인터뷰는 자아정체감 검사를 실시한 198명 중 173명이 응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보람, 재미, 도움 됨, 뜻 깊음’으로 평가하였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봄, 자신에 대해 이해함, 즐겁고 재미있어서’ 열심히 참여했으며,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자아성찰의 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실시되기를 희망하였다. 긍정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학생들은 미래자서전 쓰기를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계획해 보는 유의

〈표 6〉 미래자서전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반응	긍정적	부정적	모르겠다(보통이다)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127명 (73.4%)	25명 (14.5%)	21명 (12.1%)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활동)에 임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한다면?	120명 (69.4%)	24명 (13.9%)	29명 (16.8%)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활동)을 비롯한 여타의 수업을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144명 (83.2%)	22명 (12.7%)	7명 (4.0%)

미한 활동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질적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힘듦, 막막함, 허구적 활동’으로 평가하였고, ‘장기적 활동이라 힘들어서, 재미없어서, 꿈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많이 걸림, 시간 낭비’ 등의 이유로 계속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부정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활동 자체의 문제점보다 학과공부,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에 오랜 시간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미래자서전 쓰기의 필요성 및 의의 등에 대해 학생들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활동 위주의 수업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는데, 각각의 활동에 보다 구체성을 더하고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게 미래자서전 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활동)을 비롯한 여타의 수업을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해 83.2%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즐겁고 재미있음, 학습동기가 유발되었음, 열심히 참여했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VI. 결론 및 제언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해 통합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자아정체감이 청소년기에 긍정적으로 형성되려면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관련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서전 특히, 미래자서전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디자인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글로 쓰는 것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미래자서전쓰기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단편적인 글 한편을 쓰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에 대해 상상하고 계획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서전에 들어갈 글감을 수집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보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

서전 쓰기와 같은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교실 보다는 다양한 정보자료가 구비되어 있고, 다양한 정보활동이 가능한 학교도서관에서 수업을 전개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고등학교의 국어교사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학교도서관에서 교과와 관련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15차시에 걸쳐 전개하고, 이 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였고, 양적 검사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서면인터뷰를 통한 질적 검사도 실시하였다.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전과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에 각각 자아정체감 검사를 하였고,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미래자서전 쓰기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서면인터뷰를 병행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2학년 198명을 대상으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사전-사후 자아정체감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자아정체감 평균은 3.50점, 실시한 후의 평균은 3.66점으로 0.16점 향상되었고, 유의확률 $p=0.001 < 0.05$ 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의 여섯 개 하위요소 중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다섯 개 요소에서도 유의수준($p <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그 하위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가한 198명 중 173명이 응답한 서면인터뷰 결과에서도 2/3가 넘는 학생들이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들도 그 의의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완, 수정해 나가면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활동)을 비롯한 여타의 수업을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해 83.2%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즐겁고 재미있음, 학습동기가 유발되었음, 열심히 참여했음’ 등의 반응을 보여 도서관활용수업의 효용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도서관활용수업은 교과수업 목표(본 연구의 경우 자아정체감) 달성은 물론 학생들의 흥미유발, 수업 참여도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이상적인 도서관협력수업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활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를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서관활용

수업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와 실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도서관활용수업을 발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자서전 쓰기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의 한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고미숙. 2003.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접근: 서사적 정체성 교육. 『한국교육』, 30: 4-32.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기민진, 송기호. 2013. 사서교사와 국어교사의 협동수업이 중학생의 학습흥미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123-142.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166&cid=41991&categoryId=41991>>. [인용 2015. 8. 1].
- 노주영. 2009. 고등학교 2학년 미술수업에서 UCC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표현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17: 73-104.
- 류동규. 2010.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장서사 읽기-쓰기 통합 교육. 『비평문학』, 37: 205-227.
- 박소연, 김한별. 2012. 대학생의 저널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과정에서의 자아정체감 형성 경험 분석. 『교양교육연구』, 6: 153-178.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 373-392.
- 박언하 외. 2009. 『아동복지론』. 과주: 광문각.
- 박태진. 2010. 청소년기 자아의 치료와 정체성을 찾는 저널 쓰기 연구: 저널 도구 '대화' 쓰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11: 9-44.
- 박현이. 2006. 자아 정체성 구성으로서의 글쓰기교육 연구: 대학에서의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32: 107-139.
- 유강하. 2010. 인문학, 인간다운 삶을 빛다: '미래자서전 쓰기'의 인문치료적 접근. 『중국어문학논집』, 65: 601-623.
- 이덕주, 조미아. 2012. 고등학교 도서관의 협력수업 사례에 관한 연구: 중국어과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31-251.
- 이병기. 2006. 정보활동 중심의 도서관활용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25-46.

- 이정현. 2010. 『심리학, 열일곱 살을 부탁해』. 서울: 걷는나무.
- 이효순, 유태명. 2009.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 중학생의 가정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1): 71-88.
- 임지연. 2013. 자서전적 자기서사 글쓰기의 통합적 효과를 위한 방법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22: 313-345.
- Gardner, Howard. 2007. 『다중지능』. 유경재, 문용린 역.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 Begg, Andy. 2011. "Reflecting on Writing Autobiography." *Policy Futures in Education*, 9(2) : 145-150.
- Eisenberg, Michael B and Robert Berkowitz. 1990. *Information Problem-solving : The Big Six Skill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Norwood, NJ : Ablex.
- Harada, Violet H. and Joan M. Yoshina. 2004. *Inquiry Learning Through Librarian-Teacher Partnerships*. Worthington, Ohio: Linworth.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Im, Ji Yeon. 2013. "A Study on the Method for Integrated Effects of Autobiographic Self-narrative Writing: Focusing on Cases of Long-text Self-narrative Writing." *The Journal of Korean Arts Education Research*, 22: 313-345.
- Ki, Min-Jin and Gi Ho Song.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aborative Instruction Between a teacher Librarian and Korean Language Teacher on a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Interes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123-142.
- Ko, Mi Suk. 2003. "New Perspective of Education for Identity: Narrative Ident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0: 4-32.
- Lee, Byeong-Ki. 2006. "A Study on the Model of Library Assited Instruction Based on Information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25-46.
- Lee, Deogju and Miah Cho. 2012. "A Case Study on the High School Library-Assisted Instruction: Focused on the Chinese Project Learning."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231-251.

- Lee, Hyo-Soon and Tae-Myung Yoo. 2009. "The Effect of School Library-Assisted Instru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in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1): 71-88.
- Lee, Jeong Hyun. 2010. *Psychology, Take Care of the Seventeen*. Seoul, Korea: Walking Tree.
- Minister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2007. *Korean Language Curriculum*. Seoul, Korea: Daehan Textbook Corporation.
- Noh, Joo Young. 2009. "Effects of Self-expression Using UCC Storytelling on Formation of Ego-identity."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7: 73-104.
- Park, Ah chung. 2003.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 373-392.
- Park, Eon Ha. et al. 2009. *Child welfare*. Paju, Korea: Kwangmoonkag.
- Park, Hyun Lee. 2006. "A Study on Composition Education as a Formation of Self-identity: Focusing on the Writing Program's Application in College."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32: 107-139.
- Park, So Youn and Han Byul Kim. 2012. "A Study on the Reflective Practice for Identity Development Through Journal Writing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 153-178.
- Park, Tae Jin. 2010. "Study of Journal Writing Relating to Self-therapy and Resuming Self-identity for Teenagers: Focusing on Case Study Through 'Dialogue' Writing, a Journalistic Therapy Tool." *Writing Research*, 11: 9-44.
- Ryu, Dong Gyu. 2010. "Integrated Teaching of Reading and Writing Growth-Narrative for Establishing Self-identity." *Literary Criticism*, 37: 205-227.
- Yu, Kang-ha. 2010. "A Study on Humanistic Writing for Self-Reflection and Practice: 'Writing an Future Autobiography' from the Viewpoint of Humanities Therapy."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65: 601-623.